청주 동림산성과 보루

강민식*·조록주**

Ⅰ. 머리말
Ⅱ. 동림산성과 주변의 산성
Ⅲ. 동림산성과 보루의 현황
Ⅳ. 동림산성과 보루의 특징
Ⅴ. 맺음말

Ⅰ. 머리말

2011년 청주지역의 성곽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총 41개소를 확인한 바 있다.[1] 이 중 청주의 서쪽 지역은 성곽의 밀집도가 두드러진 곳이다. 더불어 대전 동부와 충북 옥천의 서부지역, 그리고 세종시 부강면 일대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이곳에 분포한 성곽의 初築國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 충북대학교 강사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 청주지역은 2013년 현재 청원군 지역과 세종시 편입지역 일부를 포함한 청주 일대를 말한다. 청주지역 성곽과 봉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차용걸 외, 2011.『청주서 울린 戰史의 북소리』, 청주문화원.

이것은 그만큼 점유 주체가 빈번히 교체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백제가 영유하던 시기가 길었던 만큼 이 지역의 상당수 성곽은 백제가 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백제 권역의 산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략적으로 접근하였다.[2] 대체로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의 개별적인 접근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청주와[3] 인근의 대전[4]·연기[5]·천안[6]에 분포한 성곽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한편 백제 성곽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보다 세분화된 형식분류[7]와 고구려·신라의 산성과 비교·검토,[8] 판축토성의 축조기법[9]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

2) 洪思俊, 1971.「百濟城址硏究-築城을 中心으로-」『百濟硏究』2,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車勇杰·洪成杓, 1996.「百濟 城郭의 比較硏究 試論」『百濟論叢』5,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徐程錫, 2002.『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 심정보, 2004.『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 차용걸, 2005.『백제지역의 고대산성』, 주류성.

3) 李元根, 1976.「三國時代 山城硏究-淸州·淸原地區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車勇杰, 1990.「淸州地域 百濟系 山城의 調査硏究」『백제논총』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李慶植, 2000.「忠北地域 百濟山城에 關한 硏究」, 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 盧秉湜, 2005.「淸州地域 古代城郭의 性格」『忠北史學』14, 충북대학교사학회 ; 盧秉湜, 2007.「淸州地域 古代 城郭의 築造樣相」『충북사학』18, 충북대학교사학회.

4) 成周鐸, 1974.「大田附近 古代城址考」『百濟硏究』5,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沈正輔, 1989.「大田의 古代山城」『백제연구』20,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심정보 외, 1993.『대전의 城郭』, 대전직할시 ; 李昄燮, 2005.「三國時代 山城과 古代 交通路에 대한 고찰-大田 北部圈의 文義를 중심으로-」『湖西考古學』13, 호서고고학회.

5) 朴泰祐, 1985.「燕岐郡管內 古代山城址 分布調査」『백제연구』16,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3.「天安市 및 天原郡 管內 古代山城 分布 調査報告」『백제연구』1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7) 尹武炳·成周鐸, 1977.「百濟山城의 新類型」『百濟硏究』8,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孔錫龜, 1994.「百濟 테뫼식 山城의 型式分類」『百濟硏究』2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8) 尹武炳, 1993.「高句麗와 百濟의 城郭」『百濟史의 比較硏究』,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沈正輔, 1999.「高句麗 山城과 百濟 山城과의 比較 硏究」『高句麗 山城과 防禦體系』, 고구려연구회 ; 孔錫龜, 2000.「高句麗·百濟城郭의 比較硏究」『白山學報』54, 백산학회 ; 차용걸, 2008.「신라 석축 산성의 성립과 특징」『石堂論叢』41,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9) 車勇杰, 1988.「百濟의 版築技法-版築土壘의 調査를 中心으로-」『백제연

다. 나아가 한성시기 석축 산성의 축조 여부[10]에 대한 논란과 대전 계족산성[11]과 청주 정북동토성[12] 등 개별적인 성곽의 초축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동림산성은 부강면 일대의 중첩된 산성의 배치가 북쪽으로 연결되어, 다시 鳥川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분포한 산성군과 연결된다. 동림산성은 청주 옥산면 동림리 서쪽의 동림산(해발 457.2m) 정상과 서쪽 자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을 감싼 테뫼식의 석축산성이다.[13] 그리고 최근 동림산성에서 능선을 따라 서쪽으로 400m

---

구』19,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崔孟植, 1996.「百濟 版築工法에 관한 연구」『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10) 차용걸, 2004.「漢城時期 百濟山城의 諸問題」『호서고고학』10, 호서고고학회 ; 서정석, 2004.「웅진·사비시대 백제 석성의 현단계」『호서고고학』10, 호서고고학회 ; 金虎俊, 2004.「利川 雪峰山城 築造技法 考察-서문지 및 주변 정비구간 백제성벽을 중심으로-」『文化史學』21, 문화사학회.

11) 계족산성을 백제가 처음 쌓은 것으로 보는 입장은 沈正輔, 2000.「大田 鷄足山城의 考古學的 檢討」『考古歷史學志』16, 동아대학교박물관 ; 沈正輔, 2001.「百濟 石築山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韓國上古史學報』35, 한국상고사학회가 있고, 반면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초축으로 보는 견해는 박순발, 2000.「계족산성 국적 : 신라인가 백제인가-최근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충청학연구』1, 한남대학교충청학연구센터 ; 土田純子, 2007.「大田 鷄足山城의 築造背景에 대한 考察-출토 토기 분석을 통한 저수지의 활용과정을 중심으로-」『백제연구』45,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등이 있다.

12) 이밖에 청주 정북동토성의 축조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논고로는 한병길, 2003.「忠淸地域 百濟土城의 축조양상」『先史와 古代』19, 고대학회 ; 朴淳發, 2004.「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호서고고학』10, 호서고고학회 등이 있다.

13) 동림산 정상의 안내판은 다음과 같다. 동림산성(東林山城) / 지정번호 : 청원군 향토유적 성곽 다-10 / 지정일자 : 2001. 12. 11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동림리 / 동림산성은 해발 457m의 동림산 정상에 축조된 석축산성으로 청원군 옥산면과 충남 연기군 그리고 천안시에 걸쳐 있으며 남북으로 뻗은 능선과 북서쪽으로 분기한 지맥 및 그 사이의 2개의 계곡을 포위하여 쌓은 산정식 석성으로 둘레 819.5m의 비교적 큰 성이다. 남단의 망대 바로 북족 능선에서 지름 5m, 깊이 1.4m의 역원추형으로 파인 저수시설이 확인된 바 있고, 유물로는 백제계의 토기편과 통일신라~고려중기의 토기 및 기와편이 발견된다. 망대가 성의 남동단에 배치되어 있고, 동벽이 가장 험한 지형을 이룬데다 성

떨어진 곳의 정상부에 둘레 364m의 테뫼식 보루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동림산성에 대한 조사는 문헌자료 검토와 기초적인 지표조사에 그쳤을 뿐이며, 서쪽의 산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동림산성은 청주의 도심에서 보면 서쪽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금강과 미호천 일대의 문화유적이 적지 않음을 볼 때 산성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 또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림산성 서쪽에서 작은 산성인 보루[14]가 발견됨으로써 본성과 보루가 조합을 이루는 고대 산성의 한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된 초축국, 운영시기, 축성방식 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의 정밀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섣부른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새로이 발견된 보루를 소개하고, 기존에 알려진 동림산성의 현황을 밝힘으로써 적어도 성곽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벽 안쪽으로 1~2.4m를 삭평하여 도로로 이용한 흔적 등으로 보아 백제에 의해 처음 축성된 후,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4) 지금까지 고구려 산성의 경우 둘레 300m 이하를 보루로 보는 견해(백종오, 1999.「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경기도박물관 연보』3, 61쪽 ; 徐榮一, 2002.「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文化史學』17, 한국문화사학회, 65~66쪽)와 600m 이하로 보자는 견해(崔鍾澤, 1999.「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高句麗硏究』8, 고구려연구회, 265쪽)로 나뉜다. 반면 아직까지 백제 산성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다만 대전 동·남부지역의 산성과 堡를 구분하거나(成周鐸, 1974.「大田附近 古代城址考」『百濟硏究』5,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청주 부모산성의 외곽 산성을 보루로 규정한 바 있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淸州 父母山城-地表調査 報告書-』, 청주시). 따라서 이글에서 堡壘는 일단 본성에 딸린 작은 성으로 규정하고, 둘레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또한 보루는 외곽에서 중심 성곽을 보호한다는 역할(국립문화재연구소, 2011.『韓國考古學專門事典』城郭·烽燧篇, 519쪽)에 그치지 않고 불리한 시야를 극복하거나 掎角之勢와 같은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Ⅱ. 동림산성과 주변의 산성

먼저 동림산성 주변의 입지와 산성 현황을 살펴보자. 동림산성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와 장동리,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사이에 솟은 해발 457.2m의 산 정상을 감싼 석축 산성이다. 산성이 자리한 동림산은 청주 도심에서 바라보면 서쪽에 가장 높게 솟은 산이다.

<동여도> 동림산성 주변의 산줄기와 물길

이곳 주위의 산줄기는 백두대간이 속리산에서 나뉘어 한남금북정맥을 이루는데, 서쪽으로 연결되어 청주의 상령산에 이른다. 이곳에서 산줄기는 다시 미호천을 감싸고 북쪽으로 이어져 진천 북쪽의 七賢山(516.2m)에서 금북정맥으로 나뉘어 목천을 돌아 남쪽 전의와 연기를

지나 금강에 닿는다. 또한 이곳은 금강 지류인 미호천을 경계로 북서와 남동으로 양분되며, 산줄기는 대체로 미호천과 그 지류의 수계를 감싼 둥근 모습이다. 동림산은 천안과의 경계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끝자락에 해당하며, 청주지역의 서쪽에 치우친 곳이다.

주변의 물줄기는 동쪽으로 목천을 지난 병천천이 진목탄에서 미호천과 합류하고, 서쪽은 전의에서 모아진 조천이 남류하여 미호천과 합류한다.

동림산 북쪽으로는 산줄기가 이어지지만 동남쪽으로 너른 평야가, 서쪽으로는 조천을 경계로 산줄기가 나란하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동림산을 중심으로 동서로 주요 교통로가 지나는 곳이다. 또한 동림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림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에는 다수의 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동림산성 주변의 산성 배치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이에 서쪽으로 이어진 능선상의 보루를 지나 2.6km 지점에 望京山城이 있다. 망경산성은 수신면과 전동면을 잇는 693번 지방도의 고소재 고개의 남동쪽 해발 380m의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망경산성은 산 정상부를 테뫼식으로 감싼 토석 혼축의 산성으로 둘레 660m이다.[15] 이곳에서는 고소재 고개를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천안 방면과 서남쪽 하천과 도로가 내려다보인다.

망경산성에서 고개를 지나 서북쪽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다가 남동쪽으로 돌출된 산자락에 연기 雲住山城이 위치한다. 운주산성은 동림산성으로부터 서쪽 5.6km 거리에 위치하는데, 해발 460m의 운주산 정상부와 남서쪽 계곡을 감싼 둘레 3,098m의 석축 산성으로 내·외성의 이중 구조이다. 세종시 전의면과 전동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성으로 전망이 매우 뛰어나다. 이곳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성벽의 축조 양상은 생토면 위에 할석을 섞은 점질토로 다진 후에 대

1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3.「天安市 및 天原郡 管內 古代山城 分布調査報告」『百濟硏究』14, 249~250쪽.

형 석재(기단석)를 놓고 다시 그 위에 방형에 가까운 다듬은 성돌로 정교하게 쌓았다.[16] 보고자는 이 산성의 초축 시기는 백제로 보았으나,[17] 통일신라시기에 쌓은 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8]

운주산성에서 다시 산줄기는 북서쪽으로 이어지는데, 동림산성에서 11.2km 지점에 연기 高麗山城이 있다. 고려산성은 해발 307m의 산 정상부를 테뫼식으로 감싼 둘레 250m의 산성이다. 이어 남북 축선상으로 甑山城(해발 250m, 석축, 932尺)·읍내리산성(해발 300m, 토축, 둘레 800m)·李城(해발 220m, 석축, 둘레 510m)·金伊城(해발 424m, 석축, 둘레 660m) 등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19]

이처럼 세종시 북부지역의 산성 현황은 운주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남북상에 길다란 형태로, 다시 동쪽으로는 망경산성과 동림산성으로 이어지는 배치 형태를 보인다.

한편 동림삼성 남쪽 5.8km 지점의 조천변에 청주 병마산성, 동남쪽으로 미호천을 건너 11km 정도 거리에 부모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멀리 남쪽으로 17.6km 떨어져 幞頭山城이, 동북쪽으로 오창읍의 백제 산성으로 알려진 목령산성과는 13km의 거리이다.

다음으로 동림산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를 살펴보자. 동림산성에 대한 조선시기까지의 기록은 없다. 다만 산성이 자리한 동림산은 조선시기의 기록에는 모두 龍子山이라 하였는데,

---

16)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6.『燕岐 雲住山城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8.『燕岐 雲住山城』; 충남발전연구원, 2000.『燕岐 雲住山城-文化遺蹟 試掘調査-』: 2002.『燕岐 雲住山城』, 연기군.

17) 충남발전연구원, 2002.『燕岐 雲住山城』, 연기군, 92쪽. 보고자는 서문지 일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초축 시기를 백제 때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백제 仇知縣의 중심성으로 추정하였다.

18) 徐程錫, 2000.「燕岐 雲住山城에 대한 考察-統一新羅時代 山城의 一例-」『박물관 년보』5, 공주대학교박물관, 33~38쪽.

19) 이상 연기군(현 세종시) 관내 북쪽 지역 산성의 제원은 朴泰祐, 1985.「燕岐郡管內 古代山城址 分布調査」『백제연구』16,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21~226쪽과 공주대학교 박물관, 2004.『문화유적분포지도-연기군-』, 충청남도·연기군을 참고하였다.

龍子山은 주의 서쪽 36리에 있다. 全義縣에도 보인다.[20]
용자산은 주의 서쪽 36리에 있다. 전의 雲柱山이 와서 金城倉의 主山이 되었다.[21]

라고 하여 모두 용자산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大東地志』 용자산의 주에 桐林寺를 부기하였고,[22] <대동여지도>에는 용자산과 함께 동림사를 병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용자산이며, 현재의 지명인 동림산은 동림사라는 사찰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곳 주변의 자연마을 명칭인 금성, 동림 등은 바로 주변에 있는 유적에서 비롯된 이름들인 것으로 보아[23] 동림산은 桐林寺라는 사찰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려 말 이곳 동림산엔 松泉寺란 사찰이 있었다. 李穡이 지은 懶翁眞堂記에 따르면, 청주 龍子山에 돌미륵과 석탑이 있어 나옹의 문도 覺連이 이곳에 나옹의 진영을 봉안하고 새로이 사찰을 조영하면서 이색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고 한다.[24] 이러한 기록으로 본다면 동림산이라 부르기 이전에 용자산이라 하였고, 이곳에 돌미륵과 석탑을 가진 송천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송천사가 조선 말기의 동림사와

---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청주목 山川, 龍子山[在州西三十六里 亦見全義縣] ; 권18, 全義縣 산천, 龍子山[在縣東十六里].
21) 『여지도서』 충청도 청주목 산천, 龍子山[在州西三十六里 全義雲柱山來爲金城倉主山].
22) 『대동지지』 권5 충청도 청주 山水, 龍子山[西北五十里全義界○桐林寺].
23) 영조 때 청주의 창고는 모두 11개 소가 있는데, 금성창은 '주의 서쪽 40리에 있고 16칸이라'고 하였다(『여지도서』 충청도 청주목 倉庫, 東倉 西倉 靑川倉 北倉 薪院倉 金城倉[在州西四十里 十六間] 周岸倉 大同倉 軍作米庫 官廳庫 帳籍庫).
24) 『목은문고』 권6 記 淸州 龍子山 松泉寺 懶翁眞堂記, 懶翁眞堂 名山福地皆有焉 韓山牧隱子 秉筆紀 始末久矣 今其徒覺連 又來曰 淸州龍子 有石彌勒石塔存 實福地也 連走于邑居鄕社 謁淸信男 女 得財若干 作屋三間 戊戌八月 畢功 垂我懶翁 眞于其中 僧居左右偏 所以朝夕香火 報師恩也 請先生記之 記誰不能爲 記眞堂 先生事也…. 같은 글이 『東文選』 권76, 記, 淸州龍子山松泉寺懶翁眞堂記에 실려 있다.

동일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동림산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는데,[25]

番號	種別	場所	所有	摘要	備考
2	城址	玉山面墻東里 東林里 江外面深中里	東林山國有林	玉山·江外兩面界ヲナセル東林山上ニ在リ城名不詳石築ニシデ周圍約五百三十間殆ド崩壞城中ニハ瓦片散在ス	乙種要存豫定林野
3	寺址	玉山面東林里	私有	龍子庵址ト稱ス東林山ノ東南中腹ニ在リ瓦片散在ス	

라고 하여 산성의 이름은 알 수 없고, 석축 둘레 530칸으로 대부분 붕괴되었다고 하였다.[26] 또 동림산 동남 中腹에 龍子庵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대략적인 기록 이후, 동림산성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976년 李元根의 조사자료이다. 여기에서는 산성의 명칭을 동림산석성이라 하고, 산 정상의 남북으로 뻗은 능선과 서북쪽으로 이어진 지맥을 감싸 두 계곡을 포함한 형태로 둘레 819.5m라 하였다. 또한 이 산성은 망대가 남동단에 있고, 동쪽이 험저하며, 성내에서 발견되는 백제계 토기편과 성 바깥에 龍子庵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백제가 쌓은 산성이라 하였다.[27] 이원근의 동림산성에 대한 개략적 보고는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대로 전재하였다.[28]

---

25) 朝鮮總督府, 1942.『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忠淸北道), 淸州郡, 11쪽.

26) 530間을 환산하면 대략 964m 정도로 평판 측량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7) 李元根, 1976.「三國時代 山城硏究-淸州·淸原地區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95~98쪽.

28) 충청북도, 1982.『文化財誌』, 345쪽 ; 車勇杰, 1990.「淸州地域 百濟系山城의 調査硏究」『百濟論叢』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31쪽 ; 李慶植, 2000. 「忠北地域 百濟山城에 關한 硏究」, 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7~18쪽.

Ⅲ. 동림산성과 보루의 현황

지금까지 동림산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해발 457.2m의 동림산 정상부와 동북쪽 능선 일부, 그리고 서북쪽의 산줄기를 아우른 테뫼식[29] 석축 산성이라는 것이다. 동림산성의 규모는 이원근의 보고 이후 모두 819.5m라는 둘레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금번에 동림산성에 대한 평면실측 결과 둘레는 954.6m이다. 성벽의 현황은 기본적으로 '—ㅓ'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연결된 단축과 동림산 정상부에서 서북쪽으로 길게 이어진 장축이 결합된 모양이다. 정상부는 남쪽으로 경사를 이룬 완만한 평탄면을 이루며 이곳에는 민묘와 산불감시탑, 헬리포트 등이 자리한다.(사진1) 가장 낮은 남쪽 능선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성벽이 단절되어 있다.

동림산성은 축성 재료에 따른 구분에서 일단 석축으로 보았다. 그런데 실제 지표상에 잔존한 석축 구간은 크게 세 곳의 능선과 남서쪽 짧은 능선과 연결된 일부 구간에 불과하다.[30]

성벽은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 크게 동벽과 북벽, 그리고 서남벽으로 나눌 수 있다. 성벽의 잔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벽은 정상부의 동쪽에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축조되었는데, 남쪽 통행로인 임도로부터 수평에 가깝게 이어지다 능선을 만나 경사를 이루며 다시 북동향한 능선 아래쪽으로 연결된다. 이곳은 성돌이 간혹 눈에 띌 뿐 석축 성벽은 보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직각에 가깝게

29) 보다 세분한 분류에 따르면 정상에서 한쪽 산복에 걸쳐 면적을 확보한 산복식이라 할 수 있다(孔錫龜, 1994.「百濟 테뫼식 山城의 型式分類」『百濟硏究』2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35~37쪽). 달리 삼태기형 산성이라 할 수 있으며, 성 내부의 공간과 水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35쪽).

30) 이 점에서 동림산성이 석축 산성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 토축 산성이었으나 후대에 능선 부분만 석축을 부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석축하였으나 계곡부 등 급경사 부분이 유실된 결과인지는 현재로서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을 이루어 편축한 흔적만 엿볼 수 있다. 동벽 안쪽의 정상부 아래에는 반원형의 평탄지가 있다. 동벽이 경사를 이루며 능선과 만나는 곳은 자연 암괴가 두드러지는데, 이곳은 성벽선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사진2)

사진1 동림산성 정상부(북→남)

사진2 동벽 북쪽 경사면

능선으로 연결된 성벽은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능선 바로 아래쪽을 따라 60m 가까이 성벽이 이어진다. 이곳의 능선 위에는 기존에 저수고로 알려진 凹形의 구덩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평탄지가 연이어 조성되어 있다. 성벽은 정상에서 90m 정도의 지점에서 능선을 감싸고 둥글게 돌아간다. 능선과 교차하는 지점의 성벽은 높게 조성되어 있어 협축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곳 회절부의 바깥쪽으로 성벽이 3단 정도 남아있다.(사진3) 성벽 바깥으로 반원형의 평탄지가 있고 그 바깥은 급경사를 이룬다. 동벽은 능선을 교차하여 북벽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민묘가 있고 그 앞으로 성벽선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부터 서북쪽 능선의 끝단까지의 북벽은 능선으로 돌출된 곳에 초승달 모양의 좁은 흔적을 제외하면 성벽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시 정상부에서 서북쪽으로 능선이 이어져 곳곳에 평탄지가 있다. 정상부에서 약 290m의 거리에서 북벽이 능선을 교차하여 다시 협축 구간을 이루는데, 이곳 주위로는 무너진 성돌이 상당히 많다. 특히 회절부를 포함하여 북벽 50m 구간의 무너진 성돌의 양이 가장 많다. 또한 서북쪽 능선을 가로지르는 이곳 회절부는 망루를 개설한 듯 비교

적 비고가 높으며, 이곳 바깥에는 일부 성벽이 남아있다.(사진4)

사진3 동북쪽 능선 끝단의 성벽 사진4 서북쪽 능선 끝단의 성벽

성벽은 대체로 수평을 맞추어 길이 5m, 3단 정도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직선에 가깝다. 이곳에서 능선은 이어져 안부를 지나 서쪽 보루로 연결된다.

남서벽은 남서쪽의 계곡을 끼고 이어진다. 이곳은 평탄한 통로로 바깥으로 수직에 가깝게 편축 흔적이 보여 성벽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계곡 아래쪽으로는 흘러내린 성돌이 보인다. 남서향한 계곡부의 상단을 따라 민묘가 자리하는데, 민묘 바깥쪽으로 성벽선을 추정하였다. 이곳에는 두 곳의 잔존 성벽이 남아있다. 낙엽과 잡목으로 뒤덮여 석축의 형식을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5단 정도 남아있는 곳은 방형에 가까운 성돌을 수직으로 쌓고 안쪽은 보다 작은 돌로 채워넣은 모습이다.(사진5)

수평에 가깝게 이어지는 남서벽은 다시 남쪽 능선 가까이에서 경사면을 이룬다. 이곳은 남서향한 짧은 능선에서부터 무너진 성돌이 꽤 많이 보이는데, 능선 바깥에 반원형 평탄지가 있고 그 안쪽에 협축한 듯 보인다. 이곳에 7단 정도의 성벽이 남아있다. 이곳 성벽은 방형의 성돌 위에 장방형의 성돌을 올려 쌓은 모습으로 서쪽의 성벽과 유사하다.[31](사진6)

31) 이곳의 성벽 축조 상태는 아산 鶴城山城의 서벽과 유사하다. 학성산성의

사진5 남서벽 성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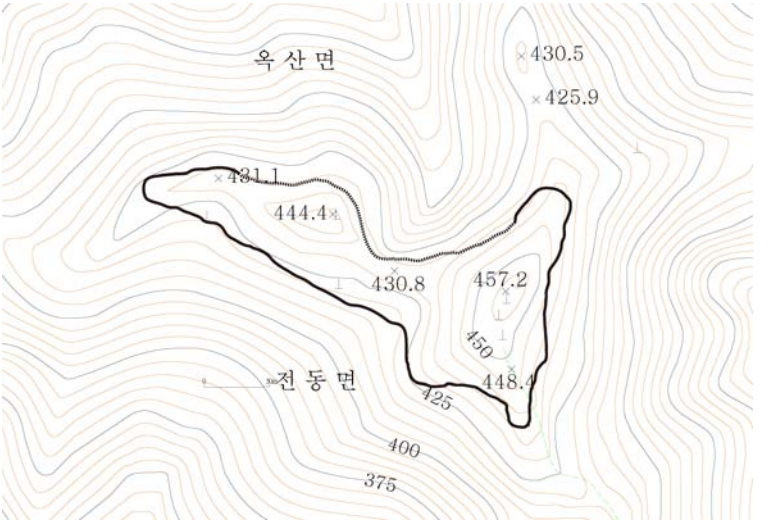
사진6 남서벽 성벽2

성문은 지표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현재 임도나 등산로가 개설된 구간을 일단 후보지로 볼 수는 있겠다. 특히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석축 성벽이 일부 남아있는 구간에는 다른 곳에 비해 무너진 성돌이 적지 않아 일단 남문터가 아닌가 한다. 이곳의 성벽은 협축식으로 쌓은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정상부를 경유하지 않고 통행하는 곳이다. 또 보루로 연결되는 서북쪽 끝단의 북벽 가까이와 북동쪽 회절부 부근도 문터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동림산성의 전체 모습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서북쪽에 위치한 보루와 최단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능선을 따라 길게 성벽이 연결되었고, 반대쪽인 동쪽으로는 마치 잘라내듯 멈춘 모습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쪽으로는 능선을 따라 망경산성과 운주산성, 그리고 그 건너의 천안지역의 여러 산성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림산성은 운주산성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 끝을 방어하던 산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동림산성에서의 조망이 보루가 있는 서북쪽을 제외하고 사방이 양호하며, 특히 동쪽과 남쪽의 전망이 우수한 점도 관

서벽은 대부분 붕괴되어 1~2단 정도가 남아있는데, 생토면 위에 20~30cm 정도 할석이 섞인 점토로 다진 후에 기단석(85×35cm)을 놓았다. 기단석 위에는 80×30cm, 40×30cm 크기의 성돌을 교차로 바른층쌓기 하였다.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牙山 鶴城山城-西門址·西壁·建物址 發掘調査-』, 아산시, 58쪽.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2]



동림산성 현황도

동림산성은 외형상 테뫼식, 전통적인 분류에 따르면 사모봉형으로 나눌 수 있다.[33] 사모봉형 산성인 동림산성은 성내에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서북쪽 능선을 포함함으로써 망경산성, 운주산성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동림산성을 독립적으로 본다면 백제 산성 중 보루를 동반한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자체적으로 지역의 거점성 역할[34]을 하였을 것으로도 볼

32) 단, 이 점은 동림산성과 운주산성이 동일시기에 운영되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입론이다. 운주산성의 초축 시기에 따라 세종시 북부지역의 방어체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동림산성의 발굴조사나 운주산성의 정확한 편년이 제시된 뒤에 논의될 문제이지만 전체적인 산성 배치와 관련하여서 언급한 것이다.

33) 「民堡議 民堡擇地之法」『與猶堂全書』 遺補3(丁若鏞) ; 『民堡輯說』 堡制 2(申觀浩, 1867), 山堡之地…紗帽峰次之[背後有峯 可作將臺 於其中腰 可以築堡 而容衆者也]….

34) 孔錫龜, 1994.「百濟 테뫼식 山城의 型式分類」『百濟硏究』2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37쪽.

수 있다.

다음으로 동림산성에서는 기와편과 토기편 등 다수의 유물이 보이고 있다. 이 중 일부 수습된 유물은 다음과 같다.

수키와편①은 회색을 띠는 연질소성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여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부는 도구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지운 흔적이 확인된다. 크기 : 13.0×8.6×2.2cm.

암키와편②는 회색을 띠는 연질소성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소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선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한 후 물손질하여 문양이 희미하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한쪽에 눈테흔이 남아있다. 크기 : 9.0×8.4×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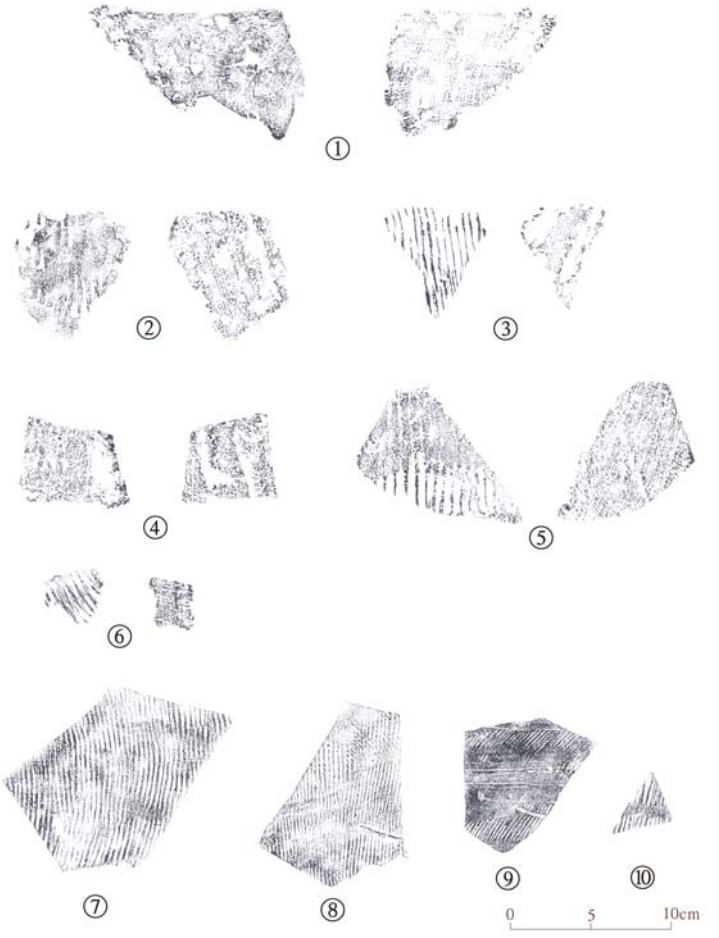
암키와편③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소성이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선문을 종방향으로 타날하였다. 이면에는 목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한쪽에 눈테흔이 남아있다. 크기 : 7.5×6.1×1.4cm.

암키와편④는 갈색을 띠는 연질소성이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선문을 종방향으로 타날한 후 물손질하여 문양이 희미하다. 한쪽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정도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크기 : 5.6×6.7×1.9cm.

암키와편⑤는 흑색을 띠는 경질소성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소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선문을 종방향으로 타날한 후 일부는 물손질하여 문양이 희미하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중앙부에 윤철흔이 남아있다. 일부에 사절흔이 확인된다. 크기 : 9.0×10.4×1.6cm.

암키와편⑥은 회색을 띠는 연질소성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은 선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크기 : 3.6×3.9×1.2cm.

토기 동체부편⑦은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으로 속심은 자갈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선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으며, 일부는 물손질하였다.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이 확인된다. 길이 11.7cm, 너비 15.0cm, 두께 : 0.7cm.



동림산성 수습유물

토기 동체부편⑧은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으로 속심은 자갈색을 띤

다. 태토는 석립이 다소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선문을 종방향으로 타날한 후 물손질하여 문양이 희미하다. 외면 하단부에는 손누름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소성 때 부푼 흔적이 확인된다. 길이 8.9cm, 너비 8.2cm, 두께 : 1.0cm.

토기 동체부편⑨는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이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선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한 후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여 일부만이 남아있다. 횡방향으로 도구로 그은 흔적이 2곳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길이 8.9cm, 너비 8.2cm, 두께 : 1.0cm.

토기 동체부편⑩은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으로 속심은 자갈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길이 4.7cm, 너비 3.2cm, 두께 : 0.7cm.

이상과 같이 수습된 유물의 양상은 편년상 삼국시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만 유물로는 동림산성을 처음 쌓은 국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현재의 유물 현황은 백제 후기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에 새롭게 확인한 동림산성 보루는 본성의 서북쪽 회절부에서 380m 정도 떨어진 곳에 연접한 능선의 정상부에 있다.[35] 이 보루는 해발 417.3m의 정상부를 감싼 둘레 364m의 테뫼식 산성이다. 보루의 평면 형태는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길다란 타원형이다. 보루 안쪽의 높이차는 남동쪽이 높고 북서쪽이 낮은 형태로, 전체적으로 사모봉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성벽의 석축은 잘 보이지 않으나,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드러난 성돌의 흔적은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부모산성 보루와 같은 축성 방식으로 볼 수 있다.(사진7) 부모산성 1보루는 지표조사 당시 토루 위를 석재로 보강한 성벽이라 하였으나,[36] 발굴조사 결과 편축식의 석축

35) 동림산성 보루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산 5번지에 위치한다.
3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淸州 父母山城-地表調査 報告書-』,

산성으로 밝혀졌다.[37] 보루 안쪽은 정상부 평탄면을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며, 특히 남서벽 안쪽 민묘가 자리한 남서 방향으로는 폭 10여 m의 평탄면이 이어지고 있다.(사진8)

동림산성 보루 평면도

성벽은 해발 400m의 등고선을 따라 축조되었는데, 능선과 만나는 지점은 협축하여 망루를 이루고 있다. 망루는 모두 3곳에서 확인되는데 대체로 초승달 모양으로 3m 가까운 높이차를 보인다.(사진9~10) 성벽은 대체로 내탁 편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동벽 일부에서는 협축으로 쌓은 듯하다.

청주시, 44쪽.

37) 2012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주 부모산성 제1보루는 사비나성과 같은 축조기법으로 축성하였는데, 1·2차 토축부 바깥에 할석으로 석축성벽을 쌓았다. 10단 이상의 완연한 석축 성벽을 확인하였다(충북대학교 박물관, 2012. 「청주 부모산성 학술발굴조사-자문위원회 회의자료-」, 16쪽).

사진7 남동쪽 통행로의 성돌

사진8 남서벽 성벽

사진9 동쪽 회절부(망루)

사진10 남쪽 회절부

현재 동림산 보루의 통행로는 동림산에서 연결된 동쪽 회절부를 돌아들어와 남서벽의 북쪽에서 망경산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있다. 성 안팎으로 연결된 등산로는 급한 경사를 통해 들어설 수밖에 없어, 성 바깥과의 고저차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보루 내에서는 일체의 유물을 수습할 수 없었다.

Ⅳ. 동림산성과 보루의 특징

앞에서 동림산성과 보루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림산성은 처음 보고될 때 둘레 819.5m의 백제 산성으로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다. 또한 새로이 찾은 동림산

성 보루도 이제야 제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조사를 통해 동림산성과 보루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전모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보고내용과 금번 조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하게 되었다.

동림산성과 보루 현황도

먼저 동림산성과 보루의 성벽 축조 양식에 대해 살펴보자. 본성에 해당하는 동림산성은 편축식의 석축 산성이다. 다만 동벽과 북벽은 상당 부분이 유실되어 축성 양식을 확인할 수 없으나 무너진 성돌로 보아 석축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서남벽에서는 일부 석축 성벽이 남아있다. 다만 동벽이 북동쪽 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자연암반만 노출되어 있어 이곳의 축성 방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능선과 교차하는 회절부 2곳과 남서벽 일부이다. 회절부의 축성 방식은 기본적으로 바른층쌓기 하였으나, 성돌은 다듬지 않고 그대로 쌓아 전체적으로 조잡한 모습이다. 반면 남서벽 일부에 남아있는 성벽은 나름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대체로 방형의 성돌 위에 정방형의 성돌을 틈새 없이 쌓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축성 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백제 산성의 석축방식과 유사하다

고 판단한다.

한편 동림산성 보루는 기본적으로 편축식의 석축 산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축 양상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형식의 산성이 청주 부모산성 보루에서 확인된 바 있어, 노출된 성돌을 통해서 기본적인 축성 방식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산성 편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산성에 출토된 유물이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성에서 편년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일부 확인된 유물과 보루의 경우 축성 양식을 통해 축성 시기를 가늠하고자 한다.

동림산성 내부에서는 기와편과 토기편을 지표상에서 수습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이 많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경질의 선조문계 기와편과 경질 토기편이 다수 있다. 기와편은 선조문계가 대부분이며 안쪽은 포목흔이 남아있다. 타날된 토기편은 선문이 대부분인데, 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문이 일부 지워진 것과 완전히 회전 물손질 후 2조의 침선을 돌린 것이 있다. 토기편의 양상은 대체로 백제 후기로 볼 수 있다.

산성의 국적과 사용 시기를 이해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산성의 배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동림산성의 산성 배치는 인근의 운주산성의 편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만일 운주산성을 백제 때의 초축이라 본다면 동림산성은 운주산성의 외곽성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일신라 때 처음 쌓은 것이라면 동림산성과 보루는 별개의 산성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루를 갖춘 산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아차산 일대의 축선상에 작은 크기의 보루를 배치한 고구려의 예가 있으며, 대전 동부지역과 옥천 일대의 산성은 산줄기를 따라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청주 가까이의 대전지역 동쪽의 산자락에 자리한 산성과 보루(자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8] 대전의 동쪽 지역의 거점 산성으

38) 沈正輔, 1989.「大田의 古代山城」『百濟硏究』20,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로 볼 수 있는 것은 鷄足山城이다. 계족산성은 해발 431.3m의 정상부와 동쪽 계곡 일부를 감싼 둘레 1,037m의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성벽은 내탁 구간과 내외협축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산성으로부터 동북쪽 1km 지점의 해발 363m의 산 정상을 감싼 둘레 280m의 테뫼식 석축 산성인 犬頭城을 子城이라 하였다. 그리고 계족산성 남쪽의 迭峴城과의 사이에 6개소의 보루가 있다.

질현성은 둘레 800m의 테뫼식 석축 산성으로 성벽은 내탁 편축하였다. 질현성으로부터 북쪽으로 200m 거리에 직경 8m의 1堡, 1보에서 다시 북쪽 60m 지점에 둘레 150m의 2보, 2보에서 북쪽 200m 거리에 둘레 30m의 3보, 3보에서 북쪽 100m 지점에 둘레 60m의 4보, 4보에서 북쪽 50m 지점에 둘레 40m의 5보, 5보에서 북쪽 50m 거리에 둘레 130m의 6보가 있다. 대체로 계족산성에서 질현성 사이에 30~200m 거리마다 보루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三丁洞山城은 해발 237m에 위치한 둘레 200m의 테뫼식 석축 산성이다. 이 산성에도 둘레 50m의 보루가 딸려있다.

한편 계족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4km 이내의 산성을 외곽성으로 보기도 한다.[39] 외곽성은 장동산성(둘레 120m), 이현동산성(둘레 약 300m), 노고성(둘레 약 300m), 견두성, 마산동산성(둘레 200m), 성치산성(둘레 160m) 등 모두 테뫼식 석축 산성들이다. 이들은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주로 감시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상 계족산성 주변의 산성 현황을 살펴보면,[40] 계족산성 북쪽의 산성은 곧 이현동산성이며, 북서쪽은 장동산성이 된다. 또 보다 남쪽의 질현성은 그 보루인 고봉산성과 북쪽 능선의 6개 보루를 포함한다

212~216쪽 : 2000.「大田 鷄足山城의 考古學的 檢討」『考古歷史學志』16, 동아대학교박물관, 311~314쪽. 심정보(1989)는 이들 산성을 鷄足山-食藏山을 연결하는 山嶺系 산성으로 나누어 신라의 전초기지인 古尸山郡(옥천)과 대치하던 산성이라 하였다.

39) 孔錫龜, 2000.「高句麗·百濟城郭의 比較硏究」『白山學報』54, 백산학회, 63~64쪽.

40) 沈正輔, 1992.「鷄足山城 精密地表調査 槪報」『考古歷史學志』8, 동아대학교박물관, 576쪽.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현동산성에서 삼정동산성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의 산성들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계족산성과 질현성을 축으로 하는 방어선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계족산성의 초축 국적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어서,[41]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인근 산자락에 위치한 다른 산성들의 위치를 통해 산성 배치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옥천지역의 산성 현황을 살펴보자.[42] 옥천지역은 크게 두 줄기의 산줄기를 따라 산성과 보루가 다수 분포한다. 대전 가까이 북동쪽의 고리산에서 식장산을 지나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서화천 건너의 서산성에서 마성산성에 이르는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성 배치는 잔존 석축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구분되는데, 서쪽 산줄기에 배치된 산성이 동쪽 방향에 석축을 남기고 있고 동쪽 산줄기의 산성은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석축을 남기고 있다.[43]

옥천 城峙山城은 해발 342.2m의 성치산 정상부와 남향하는 계곡 상단을 감싼 산복식(삼태기형) 석축 산성이다. 둘레는 약 400m 정도로, 水口의 형식과 둥근 문터의 측벽, 유물을 통해 백제 산성으로 밝혀졌다.[44] 성치산성의 서쪽으로는 부채살 모양으로 북동쪽 2km 지점의 매

41) 문헌과 지표조사를 통해 백제 산성으로 판단한 견해에 대해 충남대학교 박물관과 백제연구소의 발굴조사는 신라가 처음 쌓은 산성이라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은 沈正輔, 2000.「大田 鷄足山城의 考古學的 檢討」『考古歷史學志』16, 동아대학교박물관, 311~349쪽과 土田純子, 2007.「大田 鷄足山城의 築造背景에 대한 考察-출토 토기 분석을 통한 저수지의 활용과정을 중심으로-」『百濟硏究』45,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54~72쪽 참조.

42) 옥천지역의 산성 분포는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 대개 서쪽 대전과의 경계에 치우쳐 집중되어 있는데 당초 24개소(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新羅·百濟激戰地(管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옥천군)가 알려졌으나, 2005년 지표조사를 통해 46개소를 확인하였다(청주대학교 박물관, 2005.『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옥천군).

4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新羅·百濟激戰地(管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옥천군, 190쪽.

44) 成周鐸, 1974.「大田附近 古代城址考」『백제연구』5, 충남대학교백제연구

봉산보루(해발 228.7m, 석축, 둘레 미상)와 서북쪽 2.3km 지점의 곤륜산보루(사양리산성, 해발 435m, 석축, 둘레 155m), 서쪽 1.9km 지점의 망덕봉보루(해발 438.9m, 석축), 다시 남쪽 1.1km 지점의 鷄峴城(해발 325.8m, 석축, 둘레 262m)이 자리한다. 이들 보루를 어느 나라에서 쌓았는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 성치산성에 딸린 보루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제원이 밝혀진 청주 부모산성에 부속된 보루와 복두산성[45]이 있어 비교할 수 있다. 부모산성은 1999년 지표조사를 통해 3개의 보루를 확인하였다.[46] 부모산성은 해발 231m의 정상부와 동쪽·북쪽 계곡의 상단을 감싼 삼태기형, 사모봉형 석축 산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1,135m로, 대부분 협축하였으며 일부 기단보축성벽이 보인다. 이 밖에 수구 1개소와 문터 4곳을 확인하였다. 2004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현문식의 북문지와 북벽 수구지, 성벽 바깥의 기단보축성벽, 성 안쪽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였다.[47]

부모산성 1보루는 서벽에서 120m 거리에 있는 마안형의 석축 산성

소, 30~32쪽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新羅·百濟激戰地(管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옥천군, 81~85쪽.

45) 한편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 남이면 사동리 사이의 幞頭山城도 주목할 수 있다. 복두산성은 해발 281.5m의 산 정상부와 서쪽 200m 거리의 보우리를 감싸고, 다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을 포함하여 길게 쌓은 테뫼식 석축 산성이다. 복두산성은 1~3곽과 북쪽의 나성 형태의 능선 부분을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km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2곽의 성벽과 내부는 헬리포트와 경작지로 대부분 파괴되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뚜렷하지 않으나 석축 성벽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모봉형의 동림산성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한편 복두산성의 서쪽 1.1km 지점의 성재산성(해발 193.5m, 석축, 둘레 270m)과 동쪽 1.7km 거리의 독안산성(해발 338m, 석축, 둘레 570m)은 같은 산줄기에 배치된 본성과 보루 형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淸州 父母山城-地表調査 報告書-』, 청주시, 44~46쪽. 한편 필자는 2011년 부모산성 북쪽의 해발 138m의 봉우리에 보루 1개소를 더 확인하였다. 둘레는 약 60m 정도로 산봉형이다.

4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8.『淸州 父母山城Ⅰ 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북문지·수구부 일원-』, 청주시.

이다. 보루의 크기는 둘레 254.3m 정도로, 2012년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의 제원이 밝혀졌다.[48] 2보루는 1보루를 지나 능선을 따라 이어진 산줄기가 해발 191.5m 지점에서 솟아 이룬 봉우리를 감싼 마안형의 산성이다. 둘레는 325m 정도로 석축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3보루는 남벽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솟은 봉우리를 감싼 둘레 100m 정도의 산성이다. 부모산성과 이어진 능선 쪽은 높이 4m 정도의 성벽을 이루며, 안쪽은 민묘가 가득 들어서 있다.

부모산성은 신라가 처음 쌓은 후 사비기에 백제의 차지가 되어 다시 수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49] 보루의 경우 한성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산성과 보루의 관계와 사용 시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50]

이와 같이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가 다투던 시기, 변경의 산성 배치는 본성과 보루가 조합된 형식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백제 산성의 한 특징으로 보루성을 제시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51] 이러한 본성과 보루가 조합된 형식은 다시 같은 산줄기에 배치된 것과 서로 마주 보더라도 산줄기를 달리 하는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2]

---

48) 성벽은 사비 나성과 같은 방식으로 쌓았다고 한다. 1차 토축부에 덧붙어 2차 토축부를 만들면서 바깥에 석축 성벽을 덧대고 다시 성벽 상부는 돌을 깔아 마무리하였다고 한다(보고서 미간).

49) 2012년 서문터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6세기 중엽 신라가 처음 쌓은 후 인각와가 사용된 시점에 백제가 다시 쌓은 것이라 한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12.「청주 부모산성 학술발굴조사-자문위원회 회의자료-」, 8~12쪽).

50) 부모산성을 신라가 처음 쌓은 것이라 할 때 이보다 앞선 시기에 가장 높은 부모산성 자리를 외면하고 보루를 쌓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부모산성 내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51) 李元根, 1980.「三國時代 城郭研究」,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480쪽. 여기에서 언급한 보루성은 계족산성의 犬頭城과 山垡城, 迭峴城의 古鳳山城과 6처의 보루, 城峙山城의 梅峰山城과 崑崙山堡, 環山城의 ①~⑤ 白骨城, 西山城의 세 보루를 들고 있다.

52) 동림산성과 보루에서 시야를 넓혀 남쪽 5.8km 지점의 兵馬山城(해발

지금까지 인근 지역에서 본성과 보루를 갖는 산성을 중심으로 산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성의 편년이나 특징을 제시하기에는 미진한 면이 있으나, 이 지역의 독특한 산성 배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백제 산성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백제 산성은 주변 지역을 넓게 관측할 수 있는 돌출된 지맥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석축 성벽은 바깥 기저부의 부석 시설과 상하 일정한 크기의 성돌을 특징으로 한다.[53] 그리고 석축 산성의 출현 시점은 한성기 후기[54]와 聖興山城을 표식으로 한 6세기 전반경[55]으로 달리 보고 있다.

그런데 기록의 加林城으로 보는[56] 성흥산성은 다듬은 면석을 사용하고 있어, 백제가 석축 산성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과연 다듬은 면석을 사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처럼 방형에 가깝게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은 산성으로는 부여 羅城·성흥산성,[57] 논산 魯城山城(둘레 894m),[58] 아산 鶴城山城(둘레 530m)[59] 등이 있어 서로 비교할 수 있다.

162m, 석축, 둘레 496m)과 동남쪽의 시루봉산성(해발 183.1m, 석축, 둘레 172.4m)은 모두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시루봉산성은 동림산성의 외곽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는데, 실제 이 방면의 시야는 시루봉산성으로 인해 막혀 있다. 병마산성과 시루봉산성은 아직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제원과 편년을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53) 徐程錫, 2002.『百濟의 城郭-熊津·沙沘時代를 中心으로-』, 학연문화사, 217~247쪽.

54) 金虎俊, 2004.「利川 雪峰山城 築造技法 考察-서문지 및 주변 정비구간 백제성벽을 중심으로-」『文化史學』21, 문화사학회, 300쪽.

55) 安承周·徐程錫, 1996.『聖興山城-門址發掘調査報告書-』, 충남발전연구원·충청남도, 110~118쪽.

56) 洪思俊, 1971.「百濟城址硏究-築城을 中心으로-」『백제연구』2,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18쪽.

57) 충남발전연구원, 1996.『성흥산성 문지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남도.

58)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魯城山城』, 논산시 : 2008.『魯城山城南門址』, 논산시.

59) 충남발전연구원, 1999.『아산 학성산성-정밀지표조사보고서』, 아산시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牙山 鶴城山城-西門址·西壁·建物址 發掘調査-』, 아산시.

한편 축조 방식과 관련하여 석촌동 고분군의 조성 방식 중 토축 바깥을 석축한 것에서 석축 산성의 축조 기법을 찾아볼 수 있고,[60] 나아가 석실분의 축조 기법에서도 그 경향을 엿볼 수 있다.[61] 또한 편축 위주의 석축 방식은 백제 산성의 한 특징이기에[62] 적어도 한성 말기에는 산성에 석축 기법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림산성과 보루는 지금까지 언급한 몇 가지 사례에 비추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동림산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남단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삼국시대 산성이 산줄기의 끝자락이나 바로 뒤쪽의 높은 고지에 축성하는 사례[63]와 같은 양상으로 산성의 배치상에 있어서 유사점이 확인된다.

둘째, 동림산성과 보루는 형식상 테뫼식으로, 축조 기법은 편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테뫼식 산성과 편축기법 등의 요소들을 백제 산성의 특징으로 분류한다면,[64] 동림산성의 축성 주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벽에 정방형 또는 정방형에 가까운 석재를 이용하고 있는

60) 閔德植, 1991.「三國時代 築城法에 관한 몇가지 試考」『백산학보』38, 백산학회, 77쪽 ; 차용걸, 2004.「漢城時期 百濟山城의 諸問題」『湖西考古學』10, 호서고고학회, 13쪽.

61) 석실분의 조영 방식이나 편축식 석축 산성의 축조 방식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특히 5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백제 석실분에서 묘광과 석축 사이의 충진토는 판축한 경우가 보이는데, 이러한 축조 방식은 편축식 석축 산성의 면석 안쪽 충진 방식과 비슷하다. 백제 석축산성의 출현 시점을 판단하는 유효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유구를 통한 자세한 비교는 별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62) 경기지역에서 백제 산성으로 알려진 포천 半月山城과 이천 雪峰山城의 성벽은 편축식 위주이고, 이천 雪城山城은 협축식이다(차용걸, 2004.「漢城時期 百濟山城의 諸問題」『湖西考古學』10, 호서고고학회, 12쪽).

63) 徐程錫, 1998.「論山 魯城山城에 대한 考察」『선사와 고대』11, 한국고대학회, 250쪽.

64) 徐程錫, 1998.「論山 魯城山城에 대한 考察」『선사와 고대』11, 한국고대학회, 252~253쪽 ; 孔錫龜, 2000.「高句麗·百濟城郭의 比較硏究」『白山學報』54, 백산학회, 42쪽 ; 심정보, 2004.『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14~215쪽.

점 등은 백제 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65] 동림산성의 석축에 이용한 성돌은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방형에 가깝게 다듬은 성돌을 사용한 흔적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성돌을 일부에만 사용한 것은 다른 산성과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 앞선 것인지 혹은 전투가 치열한 변경에 위치한 것 때문인지는 현재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 삼국시대 산성의 특징 중의 하나로 1km 이내에 小城을 두어 脣齒와 掎角之勢를 이루어 서로 相扶하고 정찰과 요격, 혹은 倉城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다.[66] 이러한 이해는 동림산성과 보루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동림산성과 보루는 백제산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기존의 이해와는 同異한 점이 나타난다.[67] 다듬은 성돌을 사용한 점은 같지만, 해발 457m의 높은 산봉우리에 성벽을 쌓은 것과 둘레 954.6m에 이르는 점은 큰 차이를 보인다.[68] 그러나 백제 사비기 산성인 논산 魯

---

65) 심정보, 2004.『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18쪽.

66) 洪思俊, 1971.「百濟城址硏究-築城을 中心으로-」『백제연구』2,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24~125쪽 ; 成周鐸, 1974.「大田附近 古代城址考」『백제연구』5,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44쪽 ; 李元根, 1976.「三國時代 山城硏究-淸州·淸原地區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41쪽. 成周鐸은 環山城과 小堡, 西山城과 소보, 城峙山城과 堡, 계족산성과 迭峴城의 보를 예로 들고 있다.

67) 서정석은 백제 성곽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산성이 위치한 높이로 웅진시기에는 100~150m, 사비시기에는 250m 높이로 이동한다. 둘째, 성벽 둘레는 700m 이하이다. 셋째, 기초를 'ㄴ'자 모양으로 굴광한 후 장방형의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서정석, 2004.「웅진·사비시대 백제 석성의 현단계」『호서고고학』10, 호서고고학회, 34~39쪽.

68) 백제 성곽을 구분할 때 高度와 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성기 백제 성곽으로 알려진 포천 古毛里山城(토축, 해발 386.5m, 내성 967, 외성 240m), 파주 月籠山城(석축, 해발 218.5m, 둘레 1,315m), 의왕 慕洛山城(석축, 해발 385m, 둘레 820m), 포천 半月山城(석축, 해발 284.5m, 둘레 1,080m), 이천 雪峰山城(석축, 해발 325m, 둘레 1,079m), 이천 雪城山城(석축, 포곡식, 해발 290.5m, 둘레 1,095m), 음성 望夷山城 내성(토축, 해발 472m, 둘레 350m), 평

城山城이 해발 348m에 위치한 점[69]은 단순히 해발고도를 가지고 국적을 논하기 어려운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산복식 산성을 백제의 지방행정통치의 거점으로 이해하여 부여 聖興山城(둘레 1,500m)을 加林郡, 아산 읍내동산성(둘레 970m)을 湯井郡, 대전 德津洞산성(둘레 730m)을 所比浦縣, 아산 鶴城山城(둘레 530m)을 屈直縣, 논산 魯城山城(둘레 894m)을 熱也山縣의 치소로 각각 비정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70]

여섯째, 백제 후기의 산성 배치를 살펴보면 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공산성을 중심에 두고 원형으로 배치되고 있다.[71] 반면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현재의 연기·청주·대전·옥천지역의 산성 배치는 남북선상으로 종선 방향으로 배치되는 차이를 보인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청주 동림산성과 새로이 확인된 보루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밀한 조사가 아닌 약식 평면실측을 통해 산성의 크기를 확인한 점이나 한정된 수습유물에 따른 편년의 한계가 있지만, 기존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번 조사로 밝혀진 동림산성과 보루의 성격

택 慈美山城(토축·석축, 해발 110.8m, 둘레 582m), 여주 婆娑城(석축, 해발 230m, 둘레 936.5m), 충주 薔薇山城(석축, 포곡식, 해발 337.5m, 둘레 2,940m) 등을 살펴보면(白種伍, 2004.「百濟 漢城期 山城의 現況과 特徵」『白山學報』69, 백산학회), 백제 성곽의 판단 기준으로 고도와 둘레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9) 徐程錫, 1998.「論山 魯城山城에 대한 考察」『先史와 古代』11, 한국고대학회, 248~258쪽.

70) 徐程錫, 1998.「論山 魯城山城에 대한 考察」『先史와 古代』11, 한국고대학회, 255~256쪽 ; 孔錫龜, 2000.「高句麗·百濟城郭의 比較硏究」『백산학보』54, 백산학회, 64~66쪽. 그러나 청주 인근의 산성들은 위치나 크기에 비해 군현 치소로 비정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71) 서정석, 2004.「웅진·사비시대 백제 석성의 현단계」『호서고고학』10, 호서고고학회, 35쪽.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림산성은 사모봉형의 석축 산성이며, 둘레는 954.6m로 밝혀졌다. 이러한 크기는 백제 권역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서 보루를 동반한 이 지역의 거점성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성은 대체로 석축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잔존 부분의 석축 형태는 대략 두 유형을 확인하였다. 그 중 서남벽의 일부 성벽은 방형과 장방형의 성돌을 교차하여 쌓고 그 틈을 두지 않는 점을 통해 백제의 석축 산성으로 추정하였다. 또 동림산성 내에서 수습한 유물은 토기편과 기와편 일부에 불과하나 대체로 백제 후기의 유물로 보았다.

또한 동림산성 서쪽에서 새로이 확인된 보루의 현황도 파악하였다. 보루는 둘레 364m의 석축 산성으로 형태는 사모봉형으로 분류하였다. 지표상에 드러난 석축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등산로 개설로 드러난 정황은 청주 부모산성의 1보루와 유사하여 석축 산성으로 판단하였다. 또 보루의 존재는 동림산성을 본성으로 하여 시야의 확보와 본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성과 보루를 갖는 형식의 산성 배치는 인근의 부모산성은 물론 대전과 옥천 일대에서도 확인되는 형식으로 백제 산성 배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주 동림산성과 보루는 백제 석축산성의 운영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이다. 그렇지만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의 정밀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러한 견해는 섣부른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기대하며, 백제 석축 산성의 유형 내지는 웅진·사비기 백제 방어선의 일단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논문접수: 2013. 4. 11, 심사시작: 2013. 4. 15, 심사완료: 2013. 5. 2]

주제어 : 동림산성, 보루, 백제, 사모봉형, 거점성

<ABSTRACT>

Cheongju Donglim-fortress and Bastion

Kang, Min-sig·Jo, Rok-ju

Cheongju Donglim fortress is a stone-built fortress in the form of Samobong(Samtaegi), and its circumference measures 954.6m around. This is considerably large in size for a fortress found in the Baekje region, so it seems to have functioned as a base fortress in this area. Meanwhile, this fortress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stone-built structure, and its remains have two types of masonry. The remaining part of the south-west wall shows that the wall was built by laying out square and rectangular stones alternately and seamlessly. Based on this finding, the fortress appears to be a stone-built fortress of Baekje. Although the relics collected inside the fortress were only pieces of roof tiles and earthenware, they generally seemed to be those of the late Baekje. In this respect, Donglim fortress can be understood as a base fortress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defense of the outskirts of the castle during the late Baekje period.

In addition, a bastion newly found in the west of Donglim fortress was studied. The bastion is a stone-built fortress with the circumference of 364m and was classified as Samonong in its form. Although the original structure of the bastion has not survived, its ruins (traces) expos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hiking trails were similar to those of Bumo-fortress 1 bastion. This bastion of Donglim fortress was built to provide clear visibility and to protect

the outside of Donglim fortress. This manner of fortress arrangement, which has the parent fortress and a bastion, is one form of the fortress arrangements of Baekje and is also found in nearby Bumo fortress as well in Daejeon and Okcheon areas.

Donglim fortress and its bastion are noteworthy with respect to the operating time of Baekje's stone-built fortress. However, if not preceded by detailed research such as surface survey and excavation, this view is inconclusive. At this point, I propose a scrutinized survey and hope this is an opportunity to find Baekje's line of defense or the type of Baekje's stone-built fortress.

Keywords : Donglim-fortress, Bastion, Baekje, Samobong-type, Based fortress